

# 한국인의 정서 채운 '공간'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16〉 건축가 김수근과 서울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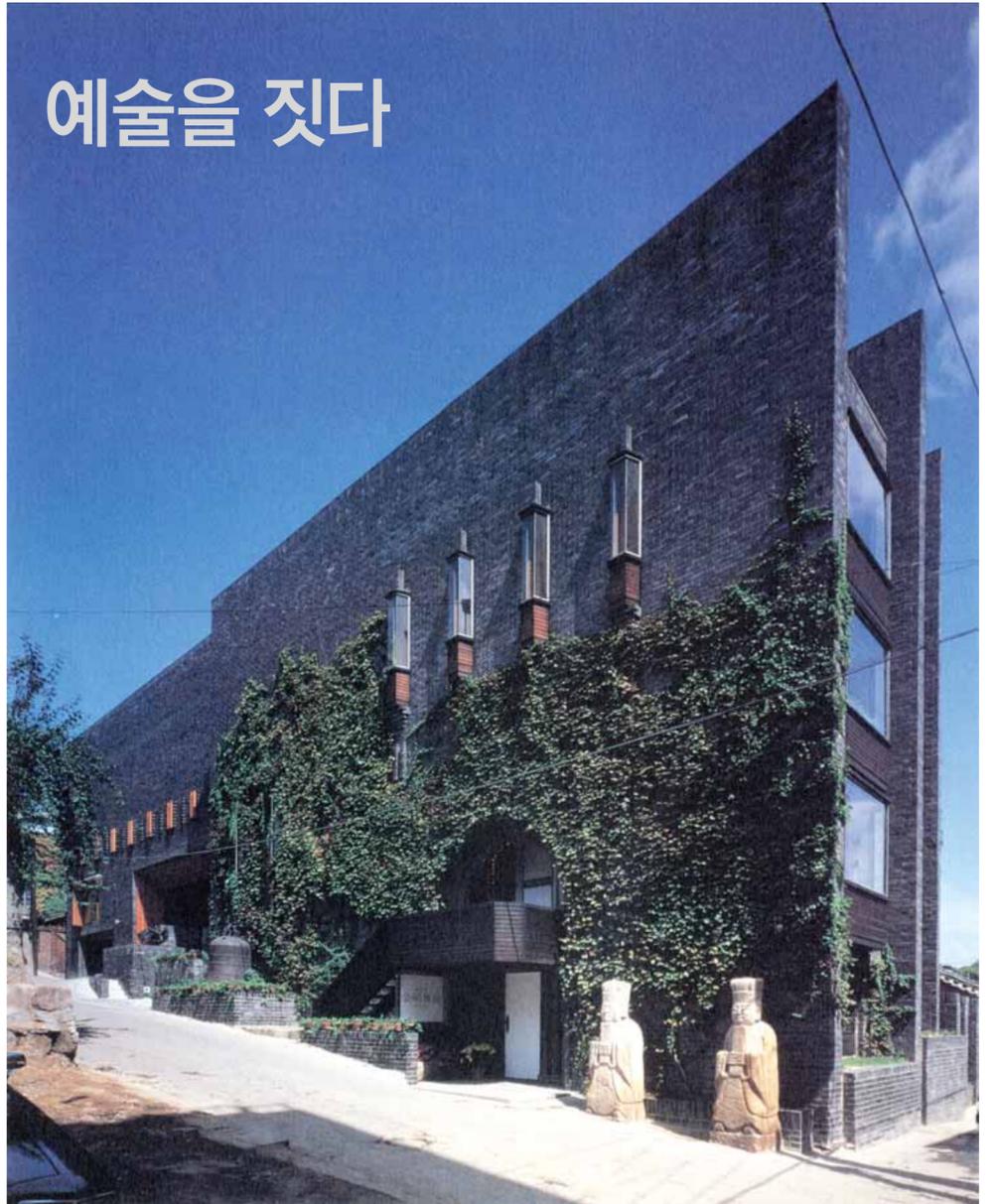
1972년 완공 '공간' 건축사무소로 사용  
2013년 경매 통해 미술관으로 재탄생  
'부여박물관' 왜색 논쟁 휘말리기도 했지만  
워커힐·자유센터·88올림픽주경기장 등  
한국현대건축사에 보석같은 작품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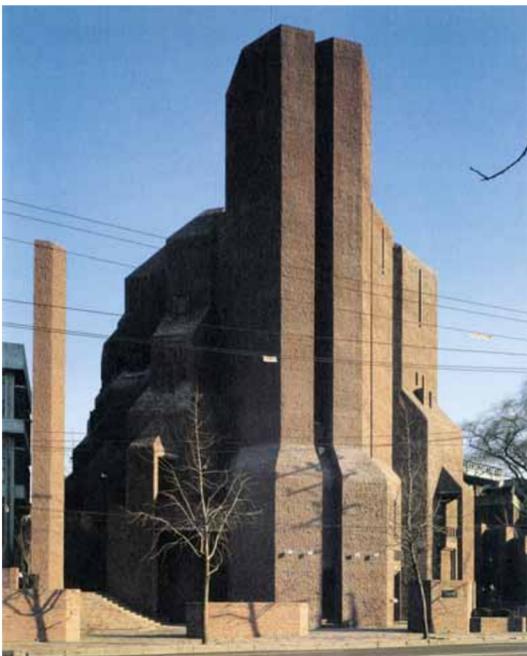
88올림픽주경기장.



김수근



서울시 종로구 원소동에 자리한 '공간' 사옥은 건축가 김수근이 1971년 설계한 것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서울 동대문역사공원 사거리 인근에 자리한 경동교회.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벽돌의 거친 느낌과 한 장 한 장 손으로 쌓아야 하는 과정이 상징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는 사랑한다.”

건축가 김수근(1931-1986). 그는 '벽돌' 같은 건축가다. 정확히 말하면 벽돌의 질감과 따스함을 지닌 건축가다. 그의 건축물에는 유독 붉은 벽돌이 많다. 아마도 붉은색은 우리 민족의 혼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일 터다.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이 발하는 아우라는 독특하다. 장인 정신, 예술가 정신을 거론하지 않아도 김수근의 건축물은 하나의 작품이다.

첨단소재의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심에서 김수근의 작품은 보석처럼 빛난다. 서울 동대문역사공원 사거리 인근에 자리한 경동교회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경건한 분위기가 감도는 예배당에선 '중세의 수도원' 분위기가 배어 나온다. 붉은 벽돌을 자른 단면이 보이도록 쌓은 건물에선 부드러움과 거친 느낌이 묻어난다. 붉은 색과 질려나간 벽돌의 단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김수근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에 자리한 공간사옥(등록문화재 제586호). 김수근 스스로 이 건물을 '둘러싸여 있으나 막히지 않은 공간(enclosed but endless space)'으로 지칭했다. 1971년 설계를

시작해 1972년에 완공된 건물로 가장 김수근다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모더니즘 양식이 독창적으로 발현된 이곳은 한때는 김수근의 건축설계사무소로도 사용되었다.

김수근문화재단 이경재 국장은 "공간 사옥은 인근 북촌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적벽돌을 사용했지만 이곳은 흑벽돌로 외벽을 쌓았다. 북촌의 한옥기와와 연계되는 색을 고려하면서도 골목이 지닌 삶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외벽을 덮고 있는 푸른 담쟁이덩굴, 내부의 작은 공간과 큰 공간의 배치, 건물과 마당의 어울림은 '공간'이 지닌 미학적 아름다움을 대변한다. 김수근 건축의 중요한 원리와 가치가 소담하게 투영돼 있다는 의미다.

황두진 건축가는 "공간을 디자인하다 건축가 김수근"에서 "거대하고 화려한 여느 건물보다 우리 마음에 친근하게 다가오는 공간 사옥은 우리나라 문화의 가능성이 한자리에 모인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고 평한다. 그러므로 김수근은 건물을 짓는 건축가를 넘어 '공간(空間)'을 창출한 예술가로 상징된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뱃속 같은 '모태공간'이 김수근이 지향했던 건축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공간그룹의 부도로 공간사옥이 공매에 부쳐진다. 김장일 아라리오그룹 회장이 공간 사옥을 150억여

원에 매입해 미술관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로 재탄생한다. 건축이 숨쉬던 공간은 현대 미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김수근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다. 1943년 서울 종로구에 정착해 1950년까지 유년기를 보냈다. 좁은 골목이 많은 북촌 한옥거리는 그의 건축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김수근이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미군 병사를 만나면서였다고 한다.

김수근문화재단 이경재 사무국장은 "당시 미국 병사가 건축가 학생이었는데, 김수근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건축공부를 제안했다"며 "이후 김수근은 서울대 건축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건축가로서의 출발은 국회의사당 설계공모에 당선되면서부터다. 그러나 5·16발발로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김수근은 워커힐, 자유센터 등을 설계하면서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김수근이 승승장구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때 '부여박물관'이 왜색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경재 사무국장은 "당시 선생은 부여박물관은 우리의 전통 건축물을 창의적으로 계승한 '김수근식 건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논쟁은 일반인에게 건축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범고창신(法古創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가 설계한 주요 작품 목록은 한국현대

건축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국립부여박물관, 설탕 사옥, 구 문에 진흥원 전시장, 양덕성당, 한계령 휴게소, 해외개발공사 사옥, 88올림픽주경기장 등... 그가 설계한 작품은 창의력과 응용력이 돋보이는 당대의 대표 건축물이다.

김수근은 건축에만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1966년 예술전문지 '공간'을 창간해 건축,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도전을 견인했다. 공옥진, 홍신자 등과 같은 이들도 '공간'을 통해 소개하고 후원을 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는 김수근문화재단이 있다. (재단 이사장은 김수근 장남 도훈 씨가 맡고 있다) 1988년 설립된 재단법인 건축가이면서도 문화예술을 위해 열정을 쏟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0년 재정된 김수근문화재단은 다양한 예술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광복절만한 활동을 한 작가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경재 사무국장은 "재단은 내년 김수근 타계 30주기를 맞이해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김수근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또한 선생의 유일한 에세이집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다'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김수근문화재단 제공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웨딩특전**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